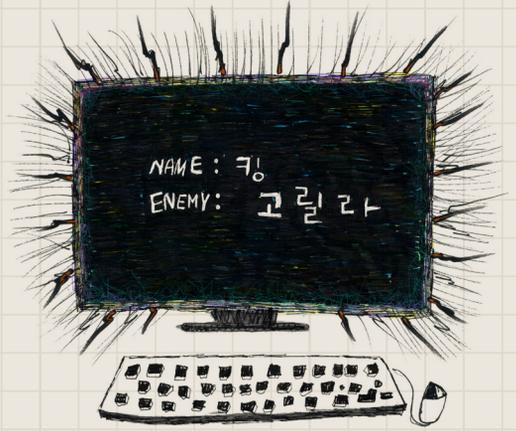


게임의 법칙

글 정설아, 그림 한담희 / 책고래



게임보다 더 잔혹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 그 맨 얼굴을 거침없는 필체로 그려내고 있는 《게임의 법칙》

《게임의 법칙》은 우연히 게임에 빠진 아이가 겪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인공 지호는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아이입니다. 키도, 몸집도 작아서 '땅콩'이라고 놀림을 당하지요. 어느 날 지호 앞에 수상한 녀석 '킹'이 나타나고, 킹의 제안으로 지호는 게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게임을 하면 할수록 민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얌전하고 내성적이었던 성격도 변해 가지요. 위험한 게임이란 것을 감지하면서도 지호는 게임을 쉽게 그만두지 못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나를 괴롭히고 보기 싫은 사람을 얼마든지 없애버릴 수 있으니까요. 지호는 과연 게임 속 세상에서 헤어날 수 있을까요? 《게임의 법칙》은 요즘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둘러싼 게임 중독, 학교 내 괴롭힘, 가정 폭력과 같은 문제를 솔직하고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인지 읽는 내내 마음 한편이 저릿저릿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둘러싼 이 세상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독후활동 시작하기

📍 다음 낱말을 이용하여 등장인물을 소개해 보세요.

곱송그리다 / 알겨먹다 / 하릴없이 / 새통거리다 / 굶뜨다 / 재우치다 /
 능갈치다 / 왜바람 / 비거스령이 / 으름장 / 뜨악하다 / 새통스럽다 /
 아랑곳하지 않다

이지호	킹	구기훈
이지홍	엄마	아빠

